

## 「나눔기술」 장영승 사장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기술은 독점될 수 없고 나눌수록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비교적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나눔기술」의 장영승사장은 나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재학 당시 C언어나 베이식(BASIC)과 같이 영어로 사고되어 짜여진 프로그램언어를 사용하던 중 한글프로그램언어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이 오늘의 나눔을 탄생케 한 것이다. 그 당시는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뜻맞는 친구 몇명이 모여 사업을 시작하게 유행처럼 번져 나눔기술과 같은 규모로 시작된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로 시작, 지금 까지 비교적 잡다한 일을 많이 해왔지만 이젠 소프트웨어분야도 아이디어에 승부를 걸어 소수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때는 이미 끝났고 조직적인 규모의 내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프트웨어업계를 조심스레 진단한 장사장은 그래서 나눔 기술도 영업과 마케팅부를 좀더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한글프로그램언어를 개발한 장영승사장

### 한글프로그램 言語 「씨앗」 개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눔기술이 컴퓨터 업계에서 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프로그램언어인 ‘씨앗’을 내놓고 부터다. ‘씨앗’은 장사장의 대학시절 꿈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공통 어인 프로그램언어를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한글사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장사장의 견해는 달랐다.

“원의 둘레를 구한다고 할 때 변수를 영어로 지정해 준다는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언어능력이 컴퓨터기술에 기본이 된다고 볼 때 기술축적이라는 면에서 한글로 된 프로그램언어를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나눔기술」같은 회사가 아니었다면 한글로 된 프로그램언어는 아마 탄생할 수 없

었을 것입니다.”

#### 초심자 유치에 큰 역할

5년의 개발과정을 거친 씨앗은 한글로 된 프로그램언어라는 잊점을 살린 탓인지 초보자들에게 컴퓨터에 쉽게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원화프로그램(modular programming)언어로 번거롭고 힘들게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무척 편리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씨앗은 애초 기술적인 측면에 승부를 건 제품이라 굳이 이윤까지 추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통일이란 큰 문제도 남아있고 연변과 중국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글언어권도 만만

치 않다고 판단한 장사장은 수익성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장사장이 처음으로 한글프로그램언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선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 걱정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씨앗' 개발의 고삐를 늦출 수 없었던 건 씨앗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다려준 고객 때문이라고 한다.

하이텔의 계시판을 통해 여러 의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한 고교생은 단지 '씨앗'의 발전이란 이유로 학생판(시가 4만원)을 마다하고 일반판(시가 7만원)을 샀다며 나눔기술과 함께 호흡하는 고객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다.

### 워크 플로우로 돈벌어

또한 나눔기술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손꼽히는 워크플로우는 '씨앗'과는 달리 프로그램언어에서부터 입출력까지 철저히 영어로 된 응용소프트웨어이다. 그래서 나눔기술을 잘 아는 사람도 이 두 제품의 양면성에 놀라곤 하는데 '씨앗'이 나눔기술의 기술력에 승부를 건 자존심을 세우는데 한 몫을 해냈다면 워크플로

우는 나눔기술의 수익성을 올려주는데

튼튼한 기동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워크플로우 (work flow)는 일반 사무작업에서 업무 시간의 90%가 문서 편집, 전달, 결재 등 문서를 처리하고 기다리는데 소모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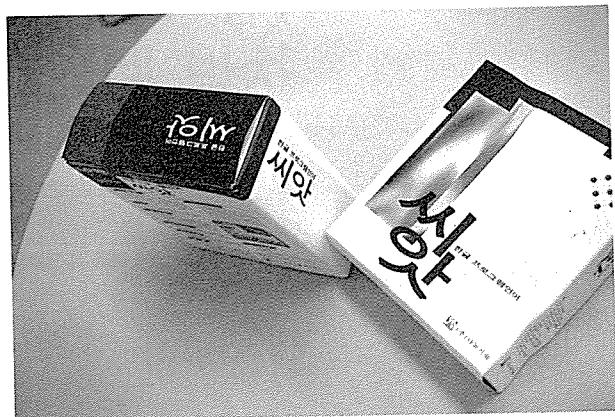
비효율적인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내의 작업과 문서흐름에 주목하여 작업효율을 떨어뜨리는 병목지점과 낡은 작업방식을 찾아 이를 개선한 소프트웨어이다.

소단위 조직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그룹웨어와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대규모 기업업무 처리에 적합하게 설계된 엔터프라이즈웨어 (Enterpriseware)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서류없는 사무실이 가능한 이 제품엔 경쟁대상이 너무 많다. 마이

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세계적인 전문기업의 엄청난 물량공세가 그렇고 대기업의 덤

평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부 은행 및 기업에서 사무자동화시스템 개발 등을 의뢰해 투자가로서의 고객역할까지 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한글프로그램언어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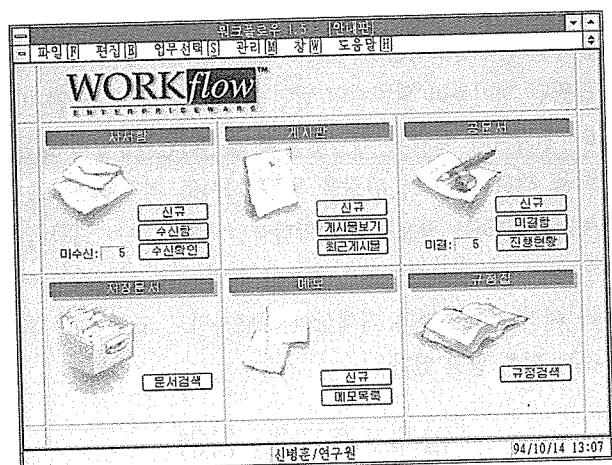
### 내년엔 일본·중국 등 공략

앞으로 소프트웨어분야는 개발비도 많이 들 뿐더러 점차 대형화 추세로 나가고 있어 더욱 자리를 굳히기 힘들 것으로 내다본 장사장은 틈새전략을 펴나갈 방침이라 한다. 내년엔 일본과 중국 등 해외로도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어서 큰 승부수를 걸고 있단다.

자본금 10억원에 4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가로서 맏형노릇을 특특히 하고 있다는 장사장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건 짚고 유능한 직원들이다. 나눔기술 직원의 평균연령은 25.1세다. "제품수명이 짧아서인지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지만 별달리 힘든줄을 몰랐습니다."

기업운영에 어느 정도 요령이 있는 턱 인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장사장은 아직 네살도 못넘긴 저희 회사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고객들의 신뢰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눔기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



◇워크플로우 인내판 화면